

# 시각적 요소들과 그 원리의 체계화: Visual Elements and Organizing Principles와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전신연 미국리포터

필자는 지난여름 이화여대에서 '시각적 요소들과 그 원리의 체계화: Visual Elements and Organizing Principles'라는 제목의 강의와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를 주제로 약 두 시간 가량 교수진과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첫 시간에서 다룬 '시각적 요소들과 그 원리의 체계화: Visual Elements and Organizing Principles'는 미국에서 십 수 년의 도예 작업과 다년간의 대학 강의를 통해 체득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형 예술에서 기본적으로 2D, 3D 디자인을 비롯해 미술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도자 예술에 적용시켜 설명했다. '디자인의 기본요소와 조직 원리 Basic Design Elements & Principles of Organization'라는 제목으로도 가르치기도 한다.

필자 또한 작가로서 작업을 계획하거나 중간에 점검할 때, 그리고 모든 작업과정을 마치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지, 혹은 무엇인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때 이 기본적인 조형요소들과 원리들을 적용해 보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가르쳤던 3D 디자인과 초등, 중고 등 미술 교과 과목들에서 학생들은 이 요소와 원리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보고 자기 작업에 적용시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분석할 때나 타인의 작품을 비평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조형 예술 작



1

1 「Head Totem XI」, 2017

2 「Moon Jar」 back view

품은 조형 요소를 작가의 의도와 구상에 맞춰 조형원리에 따라 배열하는 시각적 구성이다"라고 기초 과목에서 가르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술 이론 과목에서 언어나 사진 등을 통해 예제를 보며 이해한 학생들과, 직접 재료와 실험을 통해 경험한 학생들과는 이해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조형 요소와 그 원리들을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마치 요리사가 식당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재료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맛도 있는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입체 3 Dimensional 작품에서 사용되는 조형 요소들은 선line, 형태form, 색상color, 질감texture, 공간space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필자는 이 요소들을 여러 학회나 Sofa New York 등에서 직접 촬영한 도자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선은 그 길이로써 이해되는 형태를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직선과 곡선, 사선, 나선, 포물선과 쌍곡선 같이 다양한 선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형태는 크게 구상적/추상적 형태, 혹은 유기적/기하학적인 형태들로 나뉜다.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부수적인 작업 없이 재료 본연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리고 화장토나 화려한 색상의 유약으로 도자물의 표면을 덮어 회화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적극적positive, 소극적negative 공간space 활용의 차이, 표면에서의 효과적인 질감의 표현 등 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며 강의를 진행했다. 조형적 구성의 원리를 설명할 때에는 조화Harmony, 다양성variety, 대칭balance, 우세함dominance, 비율proportion, 경제성



2

economy 등의 구성 원리들이 사용된 여러 현대 도예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여주며 비교 분석했다. 이런 조형 구성 요소들과 조형적 구성의 원리들이 조화롭게 작가에 의해서 표현되고 구현됐을 때 그 작품은 시각적 촉각적인 통일성oneness을 갖게 된다. 그것을 시각적 통일감Visual Unity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약 50여 분간 필자의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를 진행했다. 토크는 「여인」, 「수유」 시리즈 등의 작품들과 가장 최근에 제작한 「가면무도회」 시리즈까지 모두 망라하는 약 60여장의 슬라이드로 진행했다. 필자는 학부 때 동양화를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화로 공모전과 그룹전 등에 참가했다. 그리고 1999년 우연히 동네 주민 센터에서 첫 도예 수업을 받은 후 도예를 시작해서 미국 동부 매릴랜드 주에 위치한 후드와 타운스 두 대학원을 다니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물 중심의 도자 조소/조각로 방향을 잡았다. 아티스트 토크에 준비한 작품들은 이 시기를 모두 망라하는 시리즈들이다. 한정된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해 나갔고 발표 후에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또한 이메일을 주고받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 중 일부를 월간도에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아래는 학생 권희원씨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From 권희원

To 전신연 선생님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희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 특강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되었는데, 들려주신 이야기들과 보여주시는 작품들에 감명을 받아서 강연이 끝난 후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받았습니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멋진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 2007년 4th 「Palm Beach Fine Craft Show」 작품들의 채색이나 2012년 「Moon Jars」 시리즈의 또렷하고 아름다운 색채 작업이 인상 깊은데요. 기물에 채색을 하거나 드로잉 작업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나요?**

“언더 글레이즈를 주로 사용하고, 때때로 오래전에 믹스한 화장토를 함께 사용한답니니다. 유약 번조 후에 여러 가지 러스터도 사용합니다. 6600 베스트 블랙 메이슨 스테인(Mason Stain Best Black)에 Gerstly Borate와 EPK를 1:1:1 섞으면 투명유약 밑에서 동양화의 먹 색깔과 같은 농도를 낼 수 있어요.”

**Q 기물 표면에 드로잉 작업을 할 때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미리 생각해둔 드로잉을 그리나요? 선생님은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드로잉 작업을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둘 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이 좋은 날에는 그냥 그려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만 이런 작업 행태는 추천하지 않아요. 수많은 연습과 수련을 한 사람이 아니면 망치는 게 3분의 2는 될걸요. 재료비와 노동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스케치나 밑그림 작업이 있는 게 경제적이고 망칠 확률도 적습니다.”

**Q 작업을 진행하기 전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거나 미리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계획한 뒤 작업을 진행하나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진행하는 도중에 고도의 집중과 눈으로 구도를 읽어가며 직관적인 결정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하는 스타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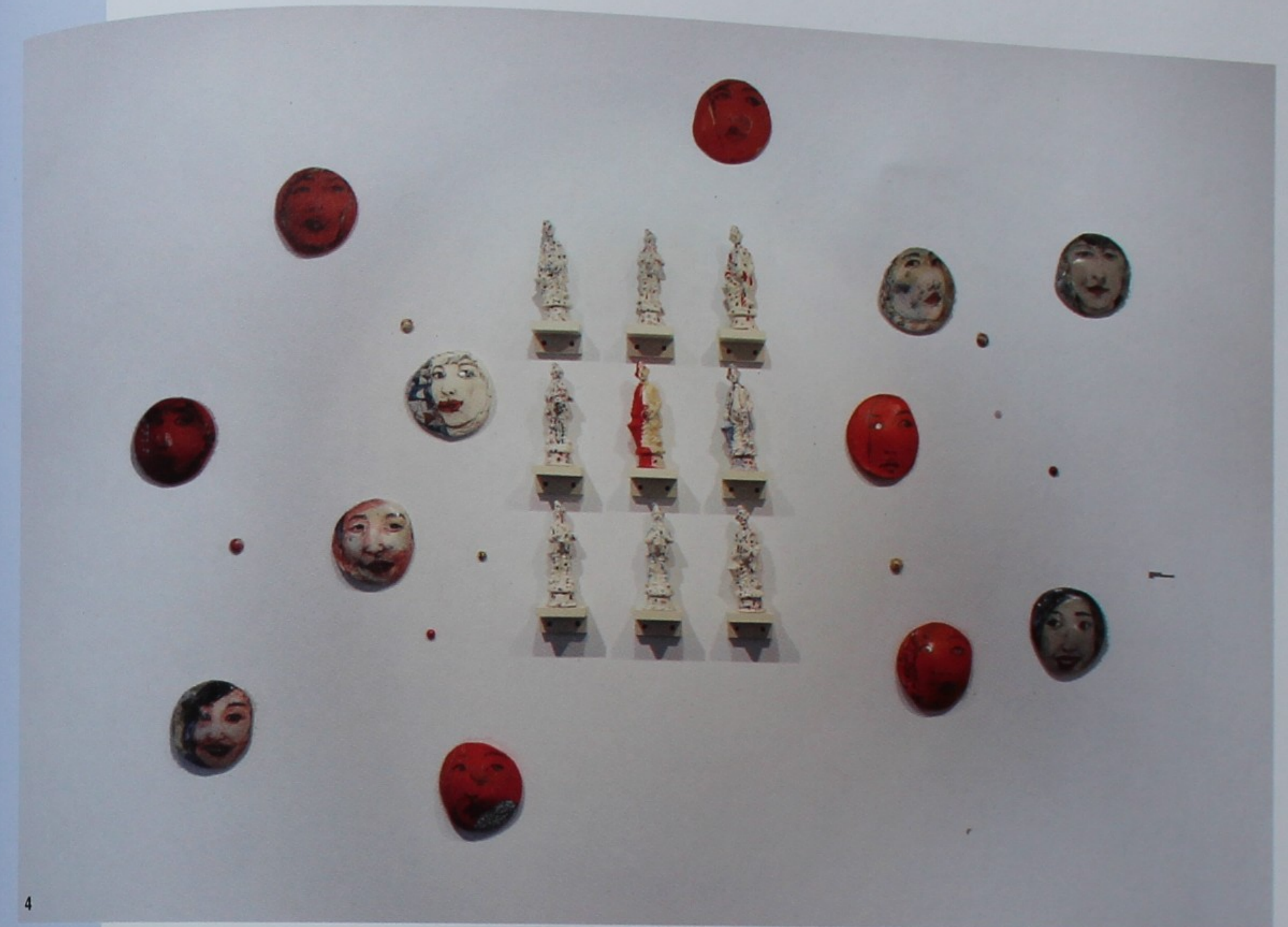
**Q 2009년 「Three Torments」, 「Theresa」 작업에서의 섬세함과 사실적인 느낌과 「Beyond Memory」 같은 작업에서 여러 오브제들이 함께 있는 작업을 할 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나요?**

“소지와 유약 모두 저온, 중화도, 고화도 등 가리지 않고 작업합니다. 다작을 해서 고르는 편인데요. 이것도 역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시간과 노동의 소모가 많고 번조 후에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디테일에도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하면 경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펀칭, 코일, 판 성형, 슬립 캐스팅 등 작업에 필요하면 그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기법을 섞어서 사용하답니니다.”



3

- 3 「Where Do We Go in a Row」 2002
- 4 「Masqurade」 2015
- 5 my studio-taken when I was working in my studio



4





6 'Wavy Woman' wall piece, 14x14x3.5cm

**Q 2010년 작품 중 두상과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함께 있는 조형 작품에서, 두상을 받치고 있는 아래의 기둥 부분이 가느다랗게 보여요. 조형작품이 무너지지 않게 무언가를 받치고 번조 했나요? 아니면 형태가 그렇게 보일 뿐 무게를 지탱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나요? 저는 작품을 성형하고 번조할 때 갈라짐이나 무너짐을 너무나 많이 겪기 때문에, 선생님은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상이나 오브제, 받침대등 모두가 비슷한 무게를 갖고 초벌 번조 때 시작 부분에서 불을 천천히 때요. 이미 벽 두께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흠이 완전히 말랐을 때 재임하고 번조하면 됩니다.”

**Q 다양하고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의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것들에서 시각적인 영감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나요?**

“저의 일상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음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 예로 「가면무도회」를 들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사람들과 사회의 벽에 부딪힐 때 자신의 진짜 얼굴(psychic & emotional condition)에 가면을 써서 가리거나 광대 옷으로 갈아입어 진짜 얼굴과 자신의 모습을 가리게 되는 것을 포슬린, 슬립 캐스팅 기법과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습득한 재료에 대한 이해도나 과정에 대한 수많은 연습이 없이는 작품을 완성하는 게 불가능 했겠죠. 과거엔 주로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려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서 스케치북에 생각을 그리거나 적어놔요.”

**Q 선생님께서 「Two Heads」를 작업하는 사진을 보았을 때,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가는 어떤 마음과 기분으로 작업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답답하거나 한숨을 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업할 때 어떠한 기분과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튜디오에 가서 마치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들처럼 준비 작업에 들어가요. 이것저것 매만지고 조그만 것들을 만들며 손과 마음을 준비(exercise)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편입니다. 가족, 친구, 일상의 걱정과 염려 등이 제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간 후 눈, 마음, 정신, 손이 다 한곳으로 집중될 때 비로소 작품이 만들어져요. 제 학생들에게는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면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음악 작품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듯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Q 선생님은 인물 조소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선생님께서는 언제 동양화, 인물 조소, 도예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배웠나요? 그리고 그 계기나 동기가 있었나요. 저도 선생님의 인체와 두상 작업을 보고 인체 조소를 배워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동양화와 드로잉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게 됐어요. 서예는 중학교 때 인사동에 위치한 김충현 서예가의 서실 ‘일종묵연’에 다녔습니다. 도예는 취미로 18년 전에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인물 조소는 대학원 재학 중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배웠습니다. 그 후 2007년 타우슨 대학에서 인체조소(The Human Figure) 강의를 준비하며 제대로 공부했어요.

무언가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가르쳐보면 됩니다. 학생들의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그들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요. 아티스트들의 삶은 길고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요. 지난여름 한두 달 가량 저는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 중 가장 대표적인 체로키 인디언(Cherokee Indian)들의 바구니 공예(Basketry)와 Finger weaving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이 쌓여서 다음 작품에 테크닉이나 물성 등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배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부 시절 ‘예인회’라는 미대 사진 클럽에서 일 년 반 동안 활동했어요. 그 당시 선배들로부터 카메라 작동법과 암실 작업 등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제 작품 사진과 학생들의 작품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영향으로 지난 일 년

간 제가 재직하고 있던 Northeastern State University 에서 기초 사진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학생들의 과제를 일주일마다 체크해 그들의 시행착오를 목격했어요. 그것은 제 과거의 사진기술이나 주제에 대한 의문점이나 경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Q 작가를 꿈꾸는 저 같은 학생에게 혹시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나요?**

“삶에 대한 많은 경험을 일이나 공부를 통해 쌓기를 추천합니다.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작업에 표현됐을 때 그 작업들은 힘을 갖게 되지요. 작품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거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갇혀 살게 되면 작업의 폭이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 재주를 수업이나 강연 등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강연 마지막에 한 학생이 던졌던 질문이 생각난다. 필자도 한 십여 년 전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도예 작가이자 미국 조지아 대학 교수인 여선구 선생께 질문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였다. 그 분의 답은 아주 간단했다. “열심히 작업해라(Work hard)”였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필자는 이렇게 답변해 주었다. “열심히 작업하고 기회를 찾아보세요. 글쓰는 작가는 쓴 글들을 발표할 수 있는 저널이나 매거진을 알아봐서 계속 출판될 때까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시각 예술가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갤러리 등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작가로서 이 명예는 15년간 이 도자예술 세계에서 작업해 온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였다. ◆

작가 전선연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타우슨 대학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노스 이스턴 주립대학의 미술대학에서 11년 넘게 3D 스튜디오 아트와 미술교육을 가르쳤다. 그녀의 웹사이트는 www.shinyeon.com이다.